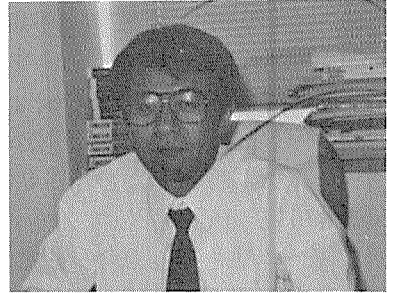


실용성 있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김희상
부설연구소 소장



“

이제는 우리 업계도 연구 개발의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개발된 제품이 기초적인 기술 확보보다는 좀더 실용적인 제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연구소 현황 및 설립 배경은?

저희 연구소는 현재 연구원 25명(학사이상 20명, 석사이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주변기기, 단말기, 프린터(레이저 프린터) 등이 중점 개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84년 5월에 (주) 웨스트시스템이 창립되었으며 부설 연구소는 처음에 개발실로 유지되어 오다가 '88년에 정식등록을 마쳤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발실부터 출발하여 햇수로 만 7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람회 우수상을 수상한 제품은?

이번에 한국전자전람회 우수상을 수상한 제품은 공정제어용 분산처리시스템(FACS : Factory Automation Computer System) 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오던 개발기준에서 사업다각화쪽으로는 눈을 돌려 '88년 12월에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을 시작하여 3년여에 걸친 연구개발로 이 제품이 탄생되었지요.

제품의 특성으로는 공정제어 현장에서의 실시간적인 처리기능 즉 Real Time Operating Sy

stem기능과 병렬처리 구조를 채택하여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다고(최대 340 MIPS)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oken Bus를 통한 Computer Network을 구축한 분산처리시스템과 VME Bus를 채택하여 응용분야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Modular Design이 탑재되어 있지요 따라서 실시간 처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제어 시스템에 활용과 CIM(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구축이 가능하며 계산량이 많은 과학계산용 고속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저희가 이제껏 해온 주된 업무는 CRT터미날을 시작으로 Graphic 터미날을 개발 시판하고 있으며 프린터는 사무용으로 Dot Matrix Printer와 Laser Printer를 개발시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X-Terminal을 최종 마무리함과 아울러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고속컴퓨팅을 요구하는 과학계산용 컴퓨터쪽으로 연구소 사업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연구원 수급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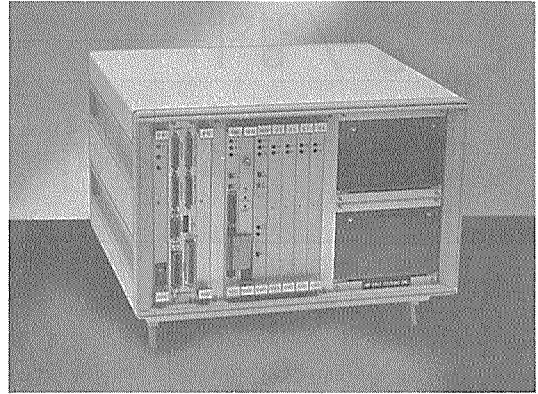
어느 연구소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어떠한 해결 방안도 없지요.

저희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순수한 자체양성을 거친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역시 과거처 산하 병역특례기관입니다만 석사급 몇명뿐이지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석사로 한정된 법을 학사까지로의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나 업계에 건의 사항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업계도 연구개발의 방법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된 제품이 기초적인 기술 확보보다는 좀더 실용적인 제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원확보 문제는 병역특례 적용을 확



대해 운영했으면 하고 연구개발장비의 관세감면제도도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는 산학연 협동도 시기적으로 활성화할 단계지요. 문제는 자금인데요 정책자금을 산학연쪽으로 연계해서 기초기술육성으로서의 실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자랑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전에 '87년 상업은행 유망중소기업과 '88년 체신부와 전자통신연구소로 부터 유망중소통신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22회 전자전람회에서 산업용부문 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연구소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제품 전부가 자체 기술과 생산과 판매를 한다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일 것입니다.

